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2호 【무게 제25185호】 주제 105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전 당, 전 군, 전 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당의 위업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위성을 만리대공에 싸올린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십만명의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영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노도쳐 전진하는 백두산대국의 무궁무진한 국력을 민방에 과시하며 주체의 위성 《광명성-4》호가 성파적으로 발사된 민족사적대경사로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올랐습니다.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한 우주정복의 속포성,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은 온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넘김없이 발휘하며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비행권을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드림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과 어머니조국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위력을 무변광대한 우주에 새긴 민족의 장한 영웅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무적인사를 보내고있다.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 《광명성-4》호를 자기 궤도에 성파적으로 진입시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한 우주정복자들이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1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3대혁명전시관으로부터 봉룡내거리, 개신문거리, 황전거리, 대학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만리대공에 밝은 빛을 뿌리는 주체위성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위훈자들을 열파안을 시각을 기다리는 수십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환영인식으로 단장된 연도에는 《《광명성-4》호발사에서 성공한 기세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세워져있으며 공화국기와 붉은기가 나뭇기고있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인물들과 관계부서 인공들이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을 3대혁명전시관에서 맞이하였다.

그들은 선군조선의 막강한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힘으로 《광명성-4》호발사를 완전성공시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민방에 떨친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녀성위주약단이 주축하는 환영복이 울려 퍼지는 속에 수도의 청년대학생들이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에게 꽃바구니를 걸어주며 뜨겁게 맞이하였다.

우주정복자들을 태운 배스형렬이 통과하는 수도의 연도는 환영의 꽃물결로 세차게 과도했다.

당이 안겨준 탄력과 배짱, 불라는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파적으로 발사하고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올린 영웅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시민들.

그들의 열광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주체의 위성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이어졌다.

조국과 인민의 열렬한 축복을 가슴 가득 받아안은 환희속에 우주정복자들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온 세계에 주체조선의 위력을 떨친 위훈자들을 태운 배스형렬이 봉룡내에 들어서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국어대학 학생들과 만경대구역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반겨맞았다.

축하의 꽃바다를 펼쳐진 거리와 거리를 지나 배스형렬은 개신문을 통과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축복해주시는 민수대인덕을 가까이하였다.

위훈자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무적불침의 정치군사강국,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면시계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게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준엄한 혁명의 난국을 헤치시며 태양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

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주체의 선군위업의 개척자, 명도자이신 절세위인들의 대양의 모습을 우리르며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백두산악같은 무비의 담력과 명철한 지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공화국의 실용위성들이 대지를 박차고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으로 솟구쳐 오를수 있게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아리하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과학기술이라는 기판차를 앞세우고 우리 조국을 가장 존엄높고 가장 위대한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여가시는 만고철세의 애국자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다.

경애하는 천수님의 현명한 명도 밑에 우주강국의 위업을 다시한번 민방에 시위한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위훈자들은 군중들을 향해 열광적으로 손을 저어주었다.

환영의 물결이 끝없이 끊이지는 연도를 따라 배스형렬이 창전거리에서 이르자 각계층 근로자들이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웨치며 축하의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백두산대국의 자주적권리와 무적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민족사적대경사에 철하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온 평양326전선공장, 대동강속전지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등의 로동계급이 위훈자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거리들에 분출되는 환영의 열광은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드락에 이어나고 당과 사상도 승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결사적으로 투쟁하여온 미대운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끝없는 찬사의 표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다져진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강성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천만군민에게 월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우리의 우주정복자들.

세계를 향해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내달리며 주체위성의 궤도 진입을 완전성공시킨 그들의 가

슴속에 간직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결사판정할 불타는 충정이었고 고결한 당적망심이였으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억척불변의 담력과 배짱이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 주체의 위성들을 더 많이 만리대공으로 쏘아올리기를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고있고 《다가자 조선아 명진앞으로》,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연도에서 녀성들이 붉은기울을 펼쳐놓아 환희와 격정을 대해주었다.

열렬한 환영의 물결을 헤가르며 배스형렬은 육류교를 지나 4.25터판을 향해 기세차게 달렸다.

철도성 녀성위주약단의 힘찬 주악이 울리는 속에 중구역, 락방구역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꽃다발을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3 번 으 로 계 속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십만명의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영

본사기자 림학락, 리진명, 리동규 특윤

위대한 당의 위업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위성을 만리대공에 싸올린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십만명의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영

1 번 에 서 계 속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존업높은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가장 깨끗한 총성의 선물을 드린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따라대위 최첨단과학기술의 명마루를 앞장에서 점령할

에국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청년대학생들도 위훈자들을 축하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선의 존엄을 우주의 만리대공에 펼친 영웅들에 대한 환영업기는 시간이 흐

를수록 더욱 뜨거웠다.
어찌 수도시민들뿐이라.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에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진부적인사를 보내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

과 용기를 배태해주고 사회주의 조선의 무궁무진한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광명성-4》호는 자강력으로 세계를 더디고 오르는 우리의 역점 기상이고 그 자리걸은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감히 막을수 없는 자주의 불변제도이며 주체위성의 속도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를 펼쳐며 노도쳐 전진하는 조선의 대비약속도이다.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우주에 펼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여! 어머니당이 인정한 오늘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가득 받으시라! 연도에 굽어치는 열정의 바다

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백두산대국의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애국총성이요 혁명적기상이었다.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의 평양도착과 그들에 대한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주체위성발사에 성공한 그 기세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화폭이었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십만명의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영

본사기자 김종훈, 김광혁 찍음

주체의 우주강국의 위용떨치며 강성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남도, 남포시 군민경축대회 진행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남도, 남포시 군민경축대회가 10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절에 즈음하여 주체의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펼친 민족의 크나큰 긍지드높이 강성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적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혁명적열의불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고넘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물에 전시되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민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명도자 김정은 동지 민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물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복속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 승리하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광명성-4》호발사에서 성공한 기세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일사불행!》, 《의용총성!》 등의 구호판들과 글발,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

수십만명의 군중들이 대회장에 모였으며, 그들은 강조하였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우주개발국 보도부 박태성 도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광복전에 이어 도당위원회 비서 리호부, 조선인민군 장령 리홍성, 평성시 판공위원회 부위원장 정명호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하며 주체의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우리 당과 군대의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이며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에서 이룩한 자랑찬 쾌승이라고 말하였다.

뜻깊은 새해부터 우리 주를 빛감시키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자랑한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우주비행선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력기하여 세기를

주물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할 것이다.》

연설자들은 조선의 청년들이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회화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영농총정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뜻깊은 올해 달구벌산 재회를 무조건 수행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도안의 청년들이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받아들여 강성국가건설의 적전성마다에서 새 새로운 영웅청년화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자강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우주개발국 보도부 김재봉 도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광복전에 이어 도당위원회 비서 권대성, 조선인민군 장령 박영복, 강계제1사범대학 교원 박성혁,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심명철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오늘에 대장거를 통하여 위대한 당의 명도자과 광명한 미래에 총공적이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인민들에게 과시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도의 경제태세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수령의 유년판별선, 당정책용위전에서 일선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펼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계정신의 창조자라게 기계공업부문에서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최첨단

실비들을 광명 생산한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세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가리워진 연구실과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교육의 전대화, 정보화적 적구 이마지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들이 홍수청년3호발선건설과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군진, 장자산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를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지적의 놀라움을 앞장에서 열이세이며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서도 청년전위의 영예를 높이 펼쳐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광명성-4》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었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온 나라를 무한한 격정과 희로 뛰어넘어지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백두의 천승위인이시여 모든 승리의 영광의 기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결승의 신심과 박판에 넘쳐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주체의 위성강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펼쳐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복속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 승리하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광명성-4》호발사에서 성공한 기세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일사불행!》, 《의용총성!》 등의 구호판들과 글발,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

수십만명의 군중들이 대회장에 모였으며, 그들은 강조하였다.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존업높은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가장 깨끗한 총성의 선물을 드린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따라대위 최첨단과학기술의 명마루를 앞장에서 점령할

에국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청년대학생들도 위훈자들을 축하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선의 존엄을 우주의 만리대공에 펼친 영웅들에 대한 환영업기는 시간이 흐

를수록 더욱 뜨거웠다.
어찌 수도시민들뿐이라.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에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진부적인사를 보내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

과 용기를 배태해주고 사회주의 조선의 무궁무진한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광명성-4》호는 자강력으로 세계를 더디고 오르는 우리의 역점 기상이고 그 자리걸은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감히 막을수 없는 자주의 불변제도이며 주체위성의 속도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를 펼쳐며 노도쳐 전진하는 조선의 대비약속도이다.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우주에 펼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여! 어머니당이 인정한 오늘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가득 받으시라! 연도에 굽어치는 열정의 바다

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백두산대국의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애국총성이요 혁명적기상이었다.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의 평양도착과 그들에 대한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주체위성발사에 성공한 그 기세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화폭이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노래주요로 대회들은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